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2010년 중국보험산업, 내실 있는 고성장 시현

□ 최근 개최된 전국 보험감독관리 업무회의에 따르면, 2010년 중국보험산업은 생·손보 모두 호조세를 나타내며 전년대비 30%를 웃도는 고성장을 시현함.

- 작년 중국 보험업계(총 146개사)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대비 각각 31%(1조 800억 위안), 35%(3,894억 위안)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 33% 증가한 1조 4,70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.
- 이는 사상 처음 수입보험료 1조 위안을 상회한 2009년 성장률 13.8%를 크게 상회한 수치로 방카슈랑스시장 활성화, 보장성상품 판매 호조 및 투자형상품 판매 회복, 내수회복에 따른 자동차보험시장 성장, 글로벌 경기회복과 내륙개발 등으로 일반보험 수요 급증 등이 보험산업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.
- 또한 지급보험금이 3,137억 위안으로 전년도의 3,126억 위안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순이익 규모는 전년대비 14.4% 늘어난 607억 위안을 시현했으며, 자산규모도 5조 위안을 상회하는 등 견실한 양적 성장을 시현함.

□ 감독당국은 올해에도 보험자산의 투자영역 확대 및 보험자산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선진보험시장 수준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됨.

- 금융시장 안정과 최근 시행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신규정책*에서 다양한 자산운용 채널을 허용하는 등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작년 보험산업의 투자수익은 7,201억 위안으로 연평균 6%를 상회하는 투자수익률을 기록함.

* 상세한 내용은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2010.8.16자 '보감회, 보험회사 자산운용관리법 발표' 편 참조

- 감독당국은 올해에도 해외투자를 비롯한 신규 투자채널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, 지불능력 강화를 위한 자본금 확대와 자산운용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시행해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 분산을 유도해 보험자산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해외 선진보험시장 수준의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, 상해증권보, 광저우일보, 1/17)